'이다'론*

李 南 淳

- 1. 서 론
- 2. '이다'의 형태론
- 3. '이다'의 의미와 기능
- 4. '이다'의 구조 조절 기능과 부정격(不定格)
- 5 '이다'문의 구조
- 6. 결 론

1. 서 론

국어 문법 현상에 관한 논의에서 '이다'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흔치 않은 것 같다. 논의의 출발은 주로 '이다'의 품사분류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국어의 문법구조를 밝힘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되어 있다.

우리가 '이다'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다'가 그에 해당하는 인구어의 동사(예컨대 'be'동사)와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국어에서 '이다'는 '이'가 잘 생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다'가 앞 요소에 의존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때로는 어미나 조사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다'로 대표되는 '고, (으)니, 어서,…' 등의 어미가 어간 '이'에 연결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면 '이다'의 '이'는 독립적인 어간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런 두 가지 모순되는 면을 '이다'가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본고는 이런 '이다'의 모순된 면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는 다른 용언돌과 달리 '이다'의 '이'가 잘 생략된다고는 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드려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 이 논문은 1999년도 흥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는 'np-(이)다' 또는 '화제-np-(이)다'의 문장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이다' 앞의 명사(또는 명사구)는 항상 주격의 부정격(不定格)으로 나타난다. '이다'에 관한 그 동안의 모순된 논의는 '이다'의 문제가 명사(또는 명사구)의 부정격 실현과 '이'의 생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구조(非構造)를 구조화(構造化)하는 '구조조절(構造調節)'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이다'가 부정격 성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이다'의 형태론

2.1. '이다'는 두 음절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있는 '이+다'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앞에 의존형식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이+다'로 나타낼 수도 있다. 크게 보면 국어문법에서 그 동안 논의해온 '이다'의 문제는, 사실 '이+다'로 표시할 것이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다'의 '이'를 지정사(指定詞)나 지정동사(指定動詞)(1)의 어간(語幹)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이다'는 '이+다'로 표시해야 적당할 것이고, '이'를 어미(語尾)나 조사(助詞), 또는 접사(接詞)와 같은 의존형식(依存形式)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다'로 표시해야 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어간으로 간주했든, 어미나 조사 또는 접사로 간주했든, '이다' 전체가 선행하는 요소에 의존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다'를 '독립한 풀이씨'로 보고 '잡음씨'(指定詞)라 이름지은 최현배(1977:191)에서도 '바탕(實質)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제홀로는 월의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름씨의 기움(補足)을 빌기는 하지마는,) 그 스스로가 풀이하는 힘을 가진 독립한 풀이씨'(괄호, 밑줄 필자)라고하여, '이다'가 독립적인 용언(풀이씨)이지만 항상 명사(이름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¹⁾ 정렬모(1948)는 동사를 '운동생동사'와 '정지생동사'로 나누고 다시 '정지생동사'는 '형용동사'(검다, 희다)와 '지정동사'(이다)로 나누고 있다.

이는 '이다'가 지난 이중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이다'가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어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미로서의 의존적인 성격을 지난 것으로 보인 것이다. '이다'가 실질의 관념을 지나는 것인가 아닌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실질'의 관념이 없는 -그래서 이를 허사(虛辭, empty word)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다 - '이다'를 독립적인 용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실질의 관념이 있는 형태소는 실사(實辭, full word)라고 불려 왔다. '이다'의 허사적인 면을 중시하면 '이'는 어미나 조사 또는 접사로서 기능어(function word)일 것이고, 실사적인 면을 중시하면 '이'는 독립적인 용언의 어간으로서 실질어(content word)일 것이다.

2.2. '이다'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이다'의 '이'를 독립적인 용어 어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우선 명사를 앞세우지 않은 경우에 '이'가 문 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는 점과 명사를 앞세운 경우라 하더라도 '이'가 곧 잘 생략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 (1) 가. *그는 이다.
 - 나. 그는 교수이다.
 - 다. 그는 교수다.
 - 라. 그는 학생이다.
 - 마. *그는 학생다.

'이' 생략은 (1다)에서와 같이 앞 명사의 끝이 모음인 경우에 일어나며 (1마)에서와 같이 앞 명사의 끝이 자음일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로 보면 '이다'의 '이' 생략형 '다'는 모음 뒤에 쓰이고 '이다'는 자음 뒤에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다'와 '다'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이형태 관계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이'가 용언의 굴절형에 나타나는 이른바 매개모음 '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매개모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면, (1)에서 '교수'와 '학생'은 서술어의 어간이고 '다'와 '이다'는 서술어의 어미가 된다. 그런데 이 '다'는

용언의 굴절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홍기문(1947:389)에는 용언에 붙는 '다'와 체언에 붙는 '이다', '다'를 모두 종결사(終結詞)라고 하여 한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으'는 용언어간일 때 나타나는 매개모음이고 '이'는 체언어간일 때 나타나는 매개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3. 그러나 국어의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다'가 어미이고 이때 '이' 가 매개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것은 '이다'의 '이'를 매개모음으로 처리하고 나면, 명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이'만의 독특한 기능⁽²⁾을 완전히 간과해 버린결과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이'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해야 할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어미도 아니고 어간도 아닌 접사로 보는 방법이다. '이'가 명사를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가 어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어미의 성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의 위치를 분포 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즉 '이'가 명사에 붙어 동사 - 좀 더 정확히는 상태동사 또는 형용사 '이' - 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이'가 어간의 일부가 됨을 보장하고, 동시에 독립적인 어간이 될 수는 없는 접사의 위치에 묶어 두는 방법이다. '5' 즉 '이'를 파생접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 (2) 가. 그는 소매치기이-다.
 - 나. 그는 소매치기-다.
 - 다. 난 반대이-다.
 - 라. 난 반대-다.

⁽²⁾ 이런 '이'의 기능은 널리 인정되어 온 것 같다. 최근 논의로는 이승재(1994)가 있는데 여기서 계사 '-이-'가 명사류에 통합되어 서술성을 부여하는 통사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³⁾ 최근 논의로는 안명철(1995)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의 기능을 통사적 파생과 어휘적 파생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닌 접사로 파악하고 있다.

⁽⁴⁾ 다음 주 14)도 참고.

⁽⁵⁾ 그렇다 하더라도 접사만이 명사어간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동사의 어간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이'를 파생접사로 간주해 보아도 '이'의 생략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가)의 '소매치기이-', (2다)의 '반대이-'가 파생어라면 접사 '이'는 생략될 수 없다. 국어에서 파생접사는 생략되지 않는다.

2.4. 명사 뒤에 붙어 나타나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아마도 조사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다'의 '이'는 조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하게 '이'를 '다'와 분리하여 조사라고 했을 때의 문제는 조사 바로 뒤에 문장을 맺는 어미 '다'가 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가 어떤 성격의 조사인가 하는 것이다.

명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뜻에서 '이'를 서술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⁶⁾ 그러나 격조사는 명사와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다'의 '이'를 격조사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격조사라면 그에 해당하는 격표시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의 격표시 기능을 규정한 논의도 없는 것 같다. (3)에서 보였듯이 '이다'의 '이' 뒤에는 다양한 어미들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미가 불을 수 있는 격표시 체계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가 어떤 종류의 격을 표시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2.5. 지금까지 '이다'에 대한 우리들의 논의는 계속 원점을 맴돌고 있는 듯하다. '이다'를 독립적인 어간으로 보려는 입장에 서면 어간 '이'가 생략되는

⁽⁶⁾ 정인승(1956)은 풀이토씨는 '이다' 하나 뿐으로서 '이'가 줄기요 '다'가 끝바꿈의 으뜸꼴이라 하고 다른 자리토씨돌과 마찬가지로 이름씨의 자리(격)를 정하여 주는 것은 물론이로되 끝바꿈(어미변화)도 하게 되고 도움줄기(보조어간)도 불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다'를 어미로 보는 입장에 서면 어간으로서의 '이'의 독특한 기능이 무시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다시 방향을 바꾸어 '이'를 접사로 보는 입장에 서면, 파생어를 만드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파생어의 구성요소인 '이'가 생략된다고 해야 하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시각을 바꾸어서 격조사로 보는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국어의 격표시 체계와 관련하여 '이'의 위치를 쉽사리 규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

3. '이다'의 의미와 기능

3.1.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다'는 관점에 따라 기능어로 분류하기도 하고 실질어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다'의 의미도 문법적 의미와 어휘적 의미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다'가 실질어로서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것이냐, 기능어로서 문법적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다'가 독립한 용언으로서의 자격을 갖느냐, 어미로서의 자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다'를 독립한 용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지정(指定)'과 같은 류(類)의 어휘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이다'를 어미나 조사 또는 접사로 보는 입장에서는 문장 '종결'이나 어휘 '과생'의 기능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다'를 독립한 용언으로 보는 입장에서 규정한 '이다'의 의미는 여타의 다른 용언들의 그것과는 성질이 매우 다르다. 사실 '지정'과 같은 류의의미는 완전한 어휘적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이다'의 이중적 성격 그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어휘적-기능적인 복합의미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3.2. '이다'는 여러 가지 내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정'을 '이다'의 대표적 의미로 삼아 논의하는 수가 많지만, '이다'는 문장 전체의 의미내용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다.

(4) 가. 저 사람은 김 선생이다.나. 갈 사람은 김 선생이다.

(4가)에서 화자는 '저 사람'이 '김 선생'임을 '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 사람'과 '김 선생'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자로 보면 '저 사람'과 '김 선생'이 지정 관계이고 후자로 보면 '저 사람'과 '김 선생'이 동일시 관계이다. (4가)에서 이 두 관계는 잘 구별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4나)에서 '갈 사람'과 '김 선생'은 동일시 판계라고 하기보다는 지정 관계라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 같다. (4나)의 화자는 '갈 사람'으로 '김 선생'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가), (4나)에서 모두 지정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지만 지정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전자의 지정은 '판단'을 배경으로 하지만, 후자의 지정은 '명령'이나 '기정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듯하다. (4)에서 문장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이다' 직전의 명사구는 모두 특정적(特定的)이다. 그러나 문두(文頭)의 명사구는 (4가)가 특정적인 데 반해서, (4나)는 특정적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3.3. 흔히 말하는 '이다' 구문의 대표적인 모습은 (5)와 같은 것들이다.

- (5) 가, 나는 나다.
 - 나. 사람은 동물이다.
 - 다.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 다. 소비자는 왕이다.

(5가)는 동어반복의 경우이지만, 앞의 '나'는 비대조적(非對照的)인 '나'이고, 뒤의 '나'는 타인과 대조되는 '나'일 것이다. '나는 (그 누구와도 구별되는) 나'라는 의미이다. 앞의 '나'와 뒤의 '나'는 서로 다른 범주 속에 놓여 있는 존재다. 그래서 (5가)는 '나'가 또다른 범주에 속하는 존재('나')임을 말하는 문장이다. (5나)는 '사람'이 '동물'의 범주에, (5다)는 '아인슈타인'이 '천재'의 범주에, (5다)는 '소비자'가 '왕'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말하는 문장이다. 그러니까(5)의 각 문장들에서 두 명사구는 동일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다'가 두 명사의 포함 관계를 들어내어 주는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다'가 나타낸다고 생각해온 대표적인 의미 중의 하나가 등가(等價, '=')

관계인데, 이 등가 관계의 많은 것들이 실은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7)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와 같이 셈의 결과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다'가 당연히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그가 천재다'와 같은 경우에는 '이다'가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 (6) 가. 영이는 선생이다. 나, 선생은 영이다.
- (6)의 '영이'와 '선생'은 등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6가)는 '영이'가 '선생'의 범주에 들어 있음을 표현하는 문장이고 (6나)는 '선생'의 범주에 들어 있는 사람이 '영이'임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이'와 '선생'이 등가 관계가 아니라 포함 관계에 있는 두 항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이다'의 기능이나 의미가 문장 전체의 의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는 사실이 우리의 논의를 자못 어렵게 만든다. 무엇이 '이다'의 본질적인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3.4. '이다'의 기능이나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계사(繁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⁸⁾ 아마도 이 용어는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한다. 계사는 논리학에서 연어(連語) 또는 연사(連辭)라는 용어로 쓰이기도한다. 문장을 하나의 명제(命題) 또는 판단(判斷)이라고 할 때 명제의 주개념 (主概念)이 되는 것을 주어(主語)라고 하고 주어에 관해 주장되는 빈개념(賓概念)을 술어(述語)라고 한다. '인간은 동물이다'에서 '인간'은 주어이고 '동물'은 술어인데 이때의 '이다'를 계사라고 한다. '이다'는 실제 문장에 표현되지않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명제의 독립적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⁹⁾

'인간은 동물이다'의 '동물'을 술어로 보면 '이다'는 문장 형성에서의 dummy

^{(7) &#}x27;이다'가 "A=B"라는 공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은 안명철 (1995)에도 보인다.

⁽⁸⁾ 김광해(1983)은 계사가 심층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명목상의 동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⁹⁾ 김준섭(1972) 참고

element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다'를 어미로 보는 관점은 논리학의 이런 관점과 통하는 데가 있다. 즉 '이다'의 '다'는 다른 유형의 문장들에서도 그렇듯이 문장 종결의 어미이고 그리고 '이'는 매개모음적인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한 것이다.

(7) 가. 봉급자는 이 시대의 봉나. 자유무역은 强者 논리다. 국민은 궁민

그렇게 보면 (7)의 세 문장은 문장 종결의 어미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다. (7)의 세 문장이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한 문장을 형성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 의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래도 (7)의 세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명사 '봉', '논리', '궁민' 뒤에 '이다'를 붙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어 문장에서 술어를 생략할 때는 어미를 남겨 놓고 어간만을 생략하거나 어간을 남겨 놓고 어미만을 생략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조사는 어간만을 남겨 놓고 생략되지만, 어미는 어간만을 남겨 놓고 생략되지는 않는다.

- (8) 가. 눈을 뜨-니, 천국이… 나. 눈 뜨-니. 천국이… 다. *눈을 뜨-, 천국이… 라. *눈을 -니. 천국이…
- (8)에서 보듯이 어미 '-니'는 어간 '뜨-'와 떨어져 생략될 수 없으며, 어간 '뜨-'도 어미 '-니'와 떨어져 생략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간 생략 없는 어미의 생략이란 국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다'는 '이다'로 나타나거나 '다'로 나타난다. '이'를 어간으로 규정하면, 어간 없이 어미 '다'만 문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느 모로 따져 보아도 국어의 '이다'가 지닌 성격은 매우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3.5. '이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흔히 쓰인다.

(9) 질문: 무<u>엇</u>을 마시니?

대답: 가, 나는 커피를 마시고 영이는 술을 마신다.

나. 나는 커피고 영이는 술이다.

다. 나는 <u>커피</u>, 영이는 <u>술</u>.

(10) 칠문: 어디 가니?

대답: 가. 영이는 산에 가고 돌이는 바다에 간다.

나, 영이는 산이고 돌이는 바다다.

다. 영이는 산, 돌이는 바다.

(9-10)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 (나)에 '이다'가 쓰였다. 이때 '이다'는 대답 (가)의 '-를 마시-'와 '-에 가-'를 대신하여 썼을 가능성이 있다. 동사문(서술 어가 동사인 문장) 형식의 질문에는, 같은 동사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9-10)의 질문(가)에 대한 대답으로는 (9-10)의 (나)와 같은 '이다'문 형식의 대답이 가능하다. 이때 '이다'는 명사에 붙어 명사가 서술어로 기능하도록 지지(支持, support)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질문의 문장 구조와는 관계없이, 질문 속의 의문사 '무엇'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대치해 넣기 위하여 '이다'를 썼을 가능성이다. 즉 의문사 '무엇'과 '어디'만을 "따와서", 그 '무엇'에 '커피'와 '술', 그 '어디'에는 '산'과 '바다'를 대치해 넣는 기능을 '이다'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가능성으로 보면 '이다'가 일종의 대용(代用) 기능이나 서술어 지지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가능성으로 보면 '이다'가 일종의 대치(代置)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답 (다)에서와 같이 '이다'가 나타나지 않아도 좋은 이유는 질문의 대상이 '무엇'과 '어디'이므로 그것을 대치하는 대상만 제시되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4. '이다'의 구조 조절 기능과 부정격(不定格)

4.1. 문장이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10) &}quot;X는 Y(가)는 이다"구문이나 "X이다"와 같은 一語文에서 '-이다'가 서술, 사태. 명제 운용자의 지지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논의는 浜之上 幸(1994) 참고.

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계층적 구조의 원리는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다'가 서술부에 나타나는 '이다'문-'지정사문'이나 '계사문'으로 불러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다'문('이다'文)으로 부르겠다-은 어떤 계층적 구조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앞에서 '이다'의 성격을 논의해 보았지만, 형태적인 면에서나 의미적, 기능적인 면에서나 '이다'가 어떠한 성격을 지닌 것인지를 자신있게 규정하지는 못했다.

문장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이다'의 정체 파악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듯하다. 문장의 구조를 계층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이다'문의 구조 분석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남 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은 국어의 '이다'문을 잠깐 살펴보아 도 금방 사실로 드러난다.

4.2. 다음 문장의 구조 분석에 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하자.

- (10) 가. 내일은 꼭 학교에 가기다.
 - 나. sm(내일은 np(se(너 꼭 학교에 가)기)다)
 - 다. sm(np(se(너 내일은 꼭 학교에 가)기)다)
 - 라. sm(np(se(너 내일은 꼭 학교에 가)기)다)
 - 마. sm(내일은 np(se(너 꼭 학교에 가)기)다)

(10가)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내일'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내일'은 화제 성분으로 쓰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0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주어는 없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문장에서 '너' 정도가 주어로 숨어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서술어로서의 '가(기)'에 대한 주어인가? 아니면 '다'에 대한 주어인가? 아니면 '가기다'의 주어인가?

주어와 서술어의 확인은 문장의 계층적인 구조를 밝히는 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10가)에서 '너'가 주어로 숨어 있다고 가정하면 '너'가 적어 도 '가기다'의 주어는 아닐 것 같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너'가 '가 (기)'의 주어가 될 때일 것 같다. 이것을 구조로 보이면 (10나)와 같을 것이 다. (10나)는 '너'가 명사형 내포문(se)의 주어임을 보여 준다. 그러면 모문 (sm)의 주어는 무엇일까? '내일'이 주어일까? (10나)의 구조에서 화제 '내일'은 모문의 성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0다)를 보면 '내일'이 내포문의 성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내일'이 본래 내포문의 처격 성분인데 (10가)에서는 화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이르면 (10가)의 문장 구조는 (10라)나 (10마)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10가)는 (10라)와 같은 '(np)-다'의 구조를 지녔거나 (10마)와 같은 '화제-(np)-다'의 구조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 '(np)-다' 또는 '화제 (np)-다'의 문장 구조는 기존의 문장 형성 원리로 보면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12) 그런데도 이런 구조의 문장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표현들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다'는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 가. 난 커피(다).나. 순이는 부산(이다).다. 영이는 톱(이다).

(11)의 문장들에서 앞에 나온 명사 '나', '순이', '영이'는 통사적으로는 주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을 주어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해석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1)의 문장들은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이라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보다 의미적으로 완전한 문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커피(다)'는 '커피를 마신다'에서, '부산(이다)'은 '부산에 간다'에서, '톱(이다)'은 '톱으로 자른다'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이들을 주어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다'의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해 주는 것 같다.

만일 이런 의미론적인 해석에 바탕을 둔다면, (11가)는 '난 커피를 마신다'에서 '난 커피'가 '절단'되어 나와 형성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커피를

^{(11) &#}x27;(np)-다'는 '화제-(np)-다'의 구조에서 화제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¹²⁾ 이 구조는 사실 이남순(1985, 1988)의 논의에서 보듯이 국어의 문장 형성 원리 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마신다'는 하나의 통사적 단위가 될 수 있지만, '난 커피'와 같은 성분의 연쇄는 하나의 통사적인 단위가 될 수 없다. 즉 '난'은 주부의 성분이고 '커피'는 서술부의 성분이므로 이 두 성분이 서술어 '마신다'와 분리되어 하나의 상위성분(단위)으로 묶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어에서 (11)의 문장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통사적 구조상으로는 묶일 수 없는 성분이 한데 묶이어 하나의 단위로 절단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다'의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다'가 통사적으로 구조화될 수 없는 성분들을 구조화하는 '구조 조절'의 기능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다.

4.4. 일단 절단되어 나온 성분의 연쇄가 '이다'에 의해 새로운 문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 문장의 구조는 성분의 연쇄가 원래 지녔던 것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구조적인 해석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11가)의 '커피'는 목적어가될 수 없고 (11나)의 '부산'은 처격어가될 수 없으며, (11다)의 '톱'은 조격어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다'의 앞 명사는 어떤 격을 지니는 것일까? 이 명사는 의미론적으로는 어떤 격으로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사론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이다' 앞자리는 이른바 부정격(不定格)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3)

'이다' 앞 명사는 그것이 어떤 격으로 해석되든지 격표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격, 대격(목적격)의 격표지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처격, 조격, 공동격의 격표지들은 나타날 수 있다.

- (12) 가. *난 커피가-이다. / *난 커피를-이다.
 - 나. 순이는 부산에-이다.
 - 다. 영이는 톱으로-이다.
 - 라. 숙이는 남편과-이다.
 - 마. 숙이가 먼저-다.

(12)를 보면, '이다' 앞에 주격이나 대격 표지는 실현될 수 없지만, 명사를 부사어로 기능하게 하는 처격의 '에', 조격의 '로', 공동격의 '와'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격표지가 실현된다고 해서, (11)에서

⁽¹³⁾ 부정격과 주격중출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남순(1988)을 참고

'부산'이 처격 성분이고, '톱'이 조격 성분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12)에서 '부산에', '톱으로', '남편과'가 각 해당 문장에서 처격, 조격, 공동격 성분은 아닌 것이다. 그 '부산에', '톱으로', '남편과'는 '절단되어' 들어 온 형식 그대로가 '이다'문의 한 구성 성분이 된 것이다. '이다'문에서는 '부산에', '톱으로', '남편과' 등의 부사어가 이미 처격, 조격, 공동격 성분이 아니며 다만 '명사(구)'의 형식으로서 새로운 격을 부여받는 성분이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12마)에서처럼 부사 '먼저'가 '다' 앞에 쓰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부사의 자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의 자격으로 쓰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4.5. 앞서 말한 '이다'가 지닌 구조 조절의 기능은 통사적 단위 설정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문장의 계층적인 구조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 이 기능은 통사적 단위 설정의 한계를 벗어난 비구조(非構造)를 구조화하는 매우 강력한 통사적 조절 장치이다. 이러한 통사적 조절의 기능은 '이다'가 부정격 성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1-12)에서 '커피', '부산', '톱', '남편'이 의미 해석상으로는 목적격, 처격, 조격, 공동격 성분에서 나온 것이 될 수는 있으나, '이다'문의 한 성분으로서 목적격, 처격, 조격, 공동격 성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다'의 성격으로 봐서 그 앞의 명사(또는 명사구)는 '주격의 부정격 성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다'는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사나 타동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이다'의 여러 의미들을 고려하면 '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형용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또한 '이다'의 어미 형태 변화를 보아도 여타의 상태동사와 일치하고 있다. (14) '이다'가 상태동사로서의 자격을 지닌 것이라면 '이다' 앞에 들어서는 명사는 주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주격이 부정격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상태동사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4.6. 이제 '이다'가 앞 명사에 의존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앞 명사가 격표지 없이 나타나 뒤의 서술동사와 성분의 연쇄를 이룰

^{(14) &#}x27;이다'에 [+상태성]을 부여하는 최근 논의로는 엄정호(1989)가 있다. 한편 안명 철(1995)는 어휘적 파생접사로서의 '-이-'가 선행명사를 형용사나 동사적인 서 술어로 전환시킨다고 한다.

때, 그 연쇄가 하나의 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사+이다'의 연쇄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앞의 명사가 부정격으로 나타나기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 (13) 가. '수박 겉 핥기' → 수박 겉 핥기지만 (둘러보기는 했어).
 나. '언 밭에 오줌 누기' → (그래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지.
 다. '내 코가 석자' →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봐 주나).
 라. '사위 사랑(은) 장모' → 사위 사랑 장모라고 (사위가 밉기야 하겠는가).
- (13)은 속담이 '이다'문에 쓰인 예를 보이려고 제시한 것이다. 속담은 내부적으로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성분의 연쇄를 이루어 한 단위처럼 쓰인다. 이돌 속담이 '이다'문에 쓰이면 그전체가 하나의 연쇄로서 명사로 구실한다. (13가,나)의 속담은 구조상 타동사구의 명사형이므로 통사적으로 '잘된(well-formed) 구조'라고 할 수 있으나 (13다.라)의 속담은 구조상 잘된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인 통사적 단위형성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주격 명사와 또 다른 명사의 연쇄인 (13다), 화제 명사와 또 다른 명사의 연쇄인 (13라)는 하나의 통사적 단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13다,라)의 속담이 비구조적이지만, 구조적인 (13가,나)의 속담과 마찬가지로 한 단위로 '이다'문에 쓰여 정상적인 표현의 일부가 된다.

구조적이든 비구조적이든 (13)의 속담들은 구조상에 결함이 있는 완전하지 못한 문장들이다. 그러나 이돌은 다른 문장의 일부로 쓰일 때에도 그 결함을 보완하려 하지 않는다. (13가,나)의 속담은 주어가 없는 구조인데, '이다'문에 쓰일 때 따로 주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 (13다,라)의 속담의 내적 구조는 서술어가 없는 구조인데, '이다'문에 쓰일 때 따로 서술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속담들의 성분 연쇄가 그 자체로 '이다'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4.7. 비구조적인 성분 연쇄도 하나의 단위처럼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다'문의 구조 분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다' 앞에는 비구조적인 성분 연쇄까지도 명사 상당의 요소로 쓰이는 것이 허락된다.

⁽¹⁴⁾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다.

(14)는 '진 땅에 장화를 신고, 마른 땅에 운동화를 신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생각한다. 이 의미 해석에서 '진 땅에'와 '마른 땅에'는 부사어로서 서술동사 '신는다'를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14)와 같은 '이다'문에서는 그와 같은 한정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 땅에 장화'와 '마른 땅에 운동화'가 비구조적인 성분 연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단위가 되어 명사의 자격으로 '이다' 앞에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분 연쇄가 대격을 유지한 채로 '이다' 앞에 나타날 수는 없다. 상태동사의 성격을 지닌 서술어 '이다'의 주어로서,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화'가 '이다' 앞에 부정격으로 실현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14)의 '진 땅에', '마른 땅에'가 '장화', '운동화'와 성분 연쇄를 이루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 땅에', '마른 땅에' 가 화제로 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14)에서 '진 땅에'와 '마른 땅에'는 화제이고 '장화'와 '운동화'는 주어이며 '(이다)다'가 서술어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5. '이다'문의 구조

5.1. '이다'문이 나타나는 형식은 'np-이다' 또는 'np np-이다'이다. 그런데 '이다'문의 구조에 대해 말할 때, 보통은 후자의 것 - 예컨대 '영이는 학생이다'에 해당한다 - 을 '이다'문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다'가 앞 명사에 의존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즉 'np'에 의존적인 '이다'가 붙어 하나의 단위(서술어)로 쓰이므로 'np-이다'만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다'문은 앞머리에 명사가 하나더 나타나지 않은 채로도 나타난다.(15)

그래서 'np(부정격) 이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연쇄로서 '이다'문의 특징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앞에는 화제 명사가 나타나서, 국어

^{(15) &#}x27;이다'가 논항을 두 개 갖는다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논항으로 보이는 둘 중 하나는 사실 화제인 것이다.

의 문장은 '화제 - 평언(np(주어) - 서술어)'의 구조를 지닌다.

- (15) 가. 난 커피다.(← (11가))
 - 나. 순이는 부산이다.(← (11나))
 - 다. 영이는 톱이다.(-- (11다))
 - 라. 숙이는 남편이다.

문장의 통사적 구조로 볼 때, (15)에서 '난', '순이는', '영이는', '숙이는'은 화제이다. 물론 '나는 커피를 마신다'(15가), '순이는 부산에 간다'(15나), '영이는 톱으로 자른다'(15다), '숙이는 남편과 (함께) 왔다'(15라)의 의미 해석으로 보면 '나', '순이', '영이', '숙이'가 주격 성분(주어)일터이고, '커피'는 대격 성분 (목적어), '부산'은 처격 성분(부사어), '톱'은 조격 성분(부사어), '남편'은 공동격 성분(부사어)이겠지만, (15)의 '이다'문 구조는 이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15)가 그러한 의미 해석상의 성분들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15가)는 '주어-목적어(대격)-이다'의 구조를, (15나-라)는 '주어-부사어-이다'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커피'는 '이다'의 목적어라고 할 수 없고 '부산', '톱', '남편'은 '이다'의 부사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다'문에서 이들 성분은 의미 해석상 그렇더라도 이미 목적어나 부사어 성분으로 쓰인 것은 아닌 것이다.

5.2. (15)의 '이다'문은 '화제(np)-주어(np)-서술어(이다)' 구조를 지닌다. 이들 '이다'문은 화제 없이 쓰일 수도 있지만 화제가 있음으로 해서 완전한 문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이남순(1985, 1988)은 주격중출문의 통사와 의미를 다루면서 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화제-평언(주어-서술어)' 구조로 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다'문 'np는 np이다'의 주어는 '이다'와 단독적인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np(여기서는 두 번째 np)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어와 같은 인구어(印歐語)의 경우 문장의 구조는 '뒤로 열린 구조'로서 서술어가 앞서고 그 다음으로 목적어, 부사어 등이 뒤를 잇는 구조이다. 그러 나 국어의 경우는 '앞으로 열린 구조'로서 목적어, 부사어 등이 앞 쪽에 위치 하고 서술어가 끝에 위치하여 문장을 마감하는 구조이다. '앞으로 열린 구조' 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 끝의 서술어에서 앞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 즉 일반적인 발화에서 문장에 먼저 나올수록 - 명사 성분이 화제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6)

국어의 문장 앞머리는 화제뿐만 아니라 주어가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화제나 주어가 되는 명사 성분이 문장 앞머리에 여럿 나타날 수 있다. 이들 명사 성분이 동일한 격 표지 '이/가'를 달고 나타나는 문장을 흔히 주격 중출문이라고 불러 왔다. '이다'는 주격의 부정격 성분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상태동사(형용사)와 함께 국어에서 주격중출문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문장에는 주격뿐만 아니라 대격을 비롯한 모든 격성분이 복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격중출문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6) 가. 그 신사는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났다. 나. 대표팀이 투수가 약하다.

(16가)와 같은 문장은 주격중출문 논의에서 이미 고전적인 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6가)의 주어는 '구멍'이고 (16나)의 주어는 '투수'이다. 앞머리에 나오는 명사 중 서술어와 단독적으로 주어-서술어 관계⁽¹⁷⁾에 놓이는 것이 '구멍'과 '투수'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 있는 '그 신사', '구두', '바닥'과 '대표팀'은 화제일 수밖에 없다.

(17) 가. 청팀은 김 선수가 구멍이다.나. 백팀은 안 선수가 후보다.다. 백팀은 안 선수가 후보이다.

'이다'를 어미나 접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음운론적인 증거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는 듯하다. (17)에서 '이다'는 앞 명사의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 냐에 따라 '이다'와 '다'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다'의 '이'는 어간 형태소가 될

⁽¹⁶⁾ 이남순(1988) 참고

⁽¹⁷⁾ 단독적인 주술관계에 대하여는 이남순(1985) 참고.

수 없기 때문에 '이다' 전체를 어미로 보거나 '이'를 접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7나)는 (17다)와 같이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다른 형식의 문장들에서도 그렇듯이 '다'는 문장의 종결어미라는 것이다. '다'를 빼고 (17가,나)의 문장을 다시 쓰면 (18)과 같다.

- (18) 가. 청팀은 김 선수가 구멍이~.나. 백팀은 안 선수가 후보~.
- (19) 가. 김 선수가 구멍인 청팀나. 안 선수가 후보인 백팀

문제는 (18나)에서 '후보' 뒤에 '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8나)에서 '이'는 나타나지 않았거나 생략된 것임이 분명하다. (18나)를 판형절로 만들어보인 (19나)를 보면 '후보' 뒤에 '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8나)의 '후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이다. (18) 이렇게 '이다'의 '이'는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는 다른 용언들과는 달리 잘 생략되는가 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보이는 묘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하여 이 '이'는 (17나)가 사실은 (17다)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가 종결어미라면 '이'는 어간일 것이 분명하다. 다만 부정격의 '구멍'과 '후보'가 앞에 있는 관계로 '이다'가 앞 명사에 의존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며 더구나 (17나)와 같이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의 의존성 때문에 '이다' 전체를 어미로 인식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부정격 실현과 '이'의 생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가운데 '이다'가 어미 취급을 당하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7)의 문장들 역시 주격중출문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5.3. '이다'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이다'의 부정어 '아니다'이다. '아니다'는 '안-이다' 또는 '아니-이다'로 분석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이 분석을 널리 이용해온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분석에 나타난 '안'이나 '아니'는 부사일 것이다. (19) '이다'를 상태동사나 형용

⁽¹⁸⁾ 이승재(1994)는 동명사어미 앞에서 '-이-'의 생략이 거부된다고 한다.

^{(19) &#}x27;안'은 명사라고 하기보다는 부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다' 앞에 오는 것은 명사나 명사구, 부사 등 다양한 성질의 어사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이

사의 범주에 넣는다면 이러한 분석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아니다'는 부사어 '안' 또는 '아니'와 술어동사 '이다'가 그 인접성(隣接性)에 바탕을 두고 견고하 게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 버린 것이다.

- (20) 가. *순이는 안 학교에 간다.나. 순이는 학교에 안 간다.
- (21) 가. *순이는 안 선생이다.나. 순이는 선생이 아니다.다. 순이는 선생 아니다.

'아니'나 '안'은 서술동사와의 인접도가 강하다. '이'를 독립적인 어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어간 앞에 직접 선행하는 요소 '안'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이 명사를 뛰어넘어 그 앞에 위치하는 (20가)나 (21가)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안'이 서술동사 바로 앞에 위치한 (20나)와 (21나)는 문법적이다. (21나)의 '선생'은 (21다)에서와 같이 격표지 없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니다'가 부사 '아니'와 '이다'의 결합으로 형성된 단어가 분명하다면, '아니다'를 '이다'와 같은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20)

한편 '이다'문의 부정 표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다.

(22) 가. 영이가 그렇게 천재이지는 않다(아니하다). 나. [?]*영이가 그렇게 천재지는 않다(아니하다).

여기서는 '천재' 뒤에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2가)는 성립하지만 (22나)는 어색하게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가 경우에 따라 생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통사적으로 민감해지는 - 다시 말하면 통사 구조상 '이'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 - 경우에는 '이'가 잘 생략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21) 즉 '-지 않다' 구조는

명사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안'을 명사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다' 앞에는 명사가 와야 한다는 잠재적 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²⁰⁾ 안명철(1995) 역시 '이다'와 '아니다'를 별개의 어휘항목에 존재하는 용언으로 보고 있다.

앞에 명사 '천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한다. 만약 '-지 않다'가 명사 '천재'만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없어도 좋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어에 존재하고 있다.

5.4. '이다'는 '-적'(-的) 뒤에도 잘 나타난다. '女性的이다', '歷史的이다', '事實的이다', '合理的이다', '分析的이다', '科學的이다' 등과 같은 'X-的' 뒤에 '이다'가 붙는 경우이다. 한자어는 국어에서 명사로 받아들인다. 이는 한자어의 각 글자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나 문법적 특징과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的'이 붙은 한자어도 국어에서는 명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들 뒤에 격표지의 연결이 가능하다.

- (23) 가、*歷史的을、*歷史的의、*歷史的에、*歷史的과
 - 나. 歷史的으로
 - 다. 歷史的이 (아니다.)
- (24) 가. *산에서 노루를 잡음의
 - 나, 산에서 노루를 잡음에, (산신령이 노했다.)
 - 다. 산에서 노루를 잡음과 (같다.)
 - 다. [?]*산에서 노루를 잡음으로 (소일했다.)
 - 라. 산에서 노루를 잡았음이 (분명하다.)
 - 마. 산에서 노루를 잡았음을 (알았다.)

그러나 좀더 정확히 하자면 'X-的'은 명사라고 하기보다는 명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23)을 보면 모든 격표지가 '-的' 뒤에 연결되지는 않는다. (23)에서는 조격 '으로'나 주격 '이'만이 연결될 수 있다. 고유어의 명사형에도 모든 격표지가 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를 보면 명사형 어미 '음' 뒤에 모든 격표지의 연결이 자유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명사에 상당하는 명사형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명사와 같은 것은 아닌 것이다. 명사형 어미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그 명사형이 쓰인 문장의 구조와의미에 따라 그때그때 실현 가능한 격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격이 있는 것이다.

5.5. 그래도 'X-的'을 'X'의 명사형으로 보는 뎨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점

⁽²¹⁾ 이런 현상은 앞서 살펴 본 (19)의 관형절에서, 관형사형어미 앞에 '이'가 다시 나타나는(복구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있다. 그것은 'X'가 이미 국어에서 명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25) 가. 합리적 사고 나. 남성적 매력
- (26) 가. *그는 합리이다.
 - 나, 그는 합리적이다.
 - 다. *그는 합리적 뎨가 있다.
 - 라. 그는 합리적인 데가 있다.
- (27) 가. *그 여자는 남성이다.
 - 나. 그 여자는 남성적이다.
 - 다. *그 여자는 남성적 데가 있다.
 - 라. 그 여자는 남성적인 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을 명사형 어미로 보지 않고 한자어 명사의 형용사 파생접미사로 보게 되면, (25)의 두 명사구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형용사 어간인 '합리적', '남성적'이 직접적으로 명사 '사고'나 '매력'을 수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합리적', '남성적'이 형용사 어간이라면 (26나), (27나)에서와 같이 '합리적', '남성적' 뒤에 '이다'가 오는 것을 설명할 마땅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가 지닌 특징 중의 하나는 명사 또는 명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2) 이 구조는 '볶음밥', '뜀틀'과 같은 합성어의 내적 구조에서부터 '걸개 그림', '쓰기 공책', '자식 사랑' 등과 같은 명사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25)가 가능한 것도 명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적'은 '앞 명사의 의미적 속성을 끌어내어 명사화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23) 물론 '-적'이 국어의 명사형 어미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문장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적'은 앞 명사의 의미적 속성을 명사화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크게 차

⁽²²⁾ 이남순(1988) 참고,

⁽²³⁾ 조남호(1988)는 '-的'의 의미로 '어기의 성질과 상태가 있음'과 '어기에 관한 것임'의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김창섭(1996)은 'X的'이 명사이며 명사성과 형용사성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고 'X的'의 명사성과 형용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매개자가 '-이-'라고 하였다.

이가 난다. (26나), (27나)와 달리 (26가), (27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합리'로 이름 붙여진 대상일 수 일 수 없고 '그 여자'가 '남성'으로 이름 붙여진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다' 앞에는 '합리'나 '남성'이 가리키는 바 대상(對象)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합리'나 '남성'이 지닌 바 속성(屬性)이 오는 것이다. (26나), (27나)는 특별한 경우에 쓰일 수 있다. '그'가 너무나 '합리적'일 경우에, '그 여자'가 너무나 '남성적'일 경우에 은유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별명이) '합리'이다' 나 '그 여자는 (별명이) '남성'이다'와 같은 경우이다.

'-적' 뒤에 '이다'의 관형형이 쓰인 (26라)와 (27라)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이다. 그러나 (26다)와 (27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뎨'가 형식명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어에서 명사형이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놓일 때는 피수식어 자리에 형식명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6. 결 론

국어에서 '이다' 문제는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다'가 지난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이다'의 '이'는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는 다른 용언들과는 달리 잘 생략되는가 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보이는 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다'는 'np-(이)다' 또는 '화제-np-(이)다'의 문장구조를 형성한다. 화제가 문장에 나타나면 '이다'는 국어 문장의 한 특징으로 논의해온 이른바 주격증출 문을 형성한다. 이때 '이다'와 단독적인 주술관계에 있는 'np'가 주어가 된다. '이다' 앞의 명사(또는 명사구)는 항상 주격의 부정격(不定格)으로 나타난다. 그 동안 '이다'를 어미나 접미사로 부당하게 취급하기도 한 것은 '이다' 문제가 명사(또는 명사구)의 부정격 실현과 '이'의 생략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가운

⁽²⁴⁾ 사전에 '-的'이 '그런 상태로 된', '그런 성질을 띤', '그것에 관계된' 등의 뜻을 지나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김민수 외 편(1991) 및 한 글학회(1992) 참고

데 일어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다'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다'가 통사적 단위 설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비구조(非構造)를 구조화(構造化)하는 '구조조절(構造調節)'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통사구조 상으로 묶일 수 없는 성분들이 하나의 통사적 단위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이다'는 지닌다. 이러한 기능은 '이다'가 부정격 성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필자 :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고문헌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서울대) 6-1.

고창수(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김광해(1983), 계사론, 蘭臺 李應百 博士 回甲紀念論文集, 보진재.

김민수 외 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김민수(1994), '이다' 처리의 논쟁사, 주시경학보 13.

김승곤(1986), 풀이자리토씨 '이다'에 대한 한 고찰, 한글 191.

김준섭(1972), 개고 논리학, 정음사.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총서21(국어학회), 태학사.

남기심(1986),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불연구(연세대) 7.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서정목(1993), 계사 구문과 그 부정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 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성광수(1976), 불완전명사+{하(다), 이다}에 대한 생성론적 분석, 어문론집(고 려대) 17.

송석중(1990), "이다" 논쟁의 반성, 애산학보 10, 애산학회.

송철의(1988),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이 병근 외(1993) 所收).

시정곤(1993), '-이다'의 '-이-'가 접사인 및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 안명철(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 양정석(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 엄정호(1989),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구조, 국어학 18.
- 이남순(1985), 주격중출문의 통사구조, 국어국문학(이남순(1998) 所收).
- 이남순(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국어학총서 14(국어학회), 탑출 판사.
- 이남순(1998), 격과 격표지, 도서출판 월인.
- 이병근 외(1993), 형태, 태학사.
- 이숭녕(1956), 소위 지정사 '이다'론의 서설, 국어국문학 15.
- 이승재(1994), '-이-'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임홍빈(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서울대) 21-3.
- 임흥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서울대) 25-1.
- 정렬모(1948), 고급국어독본문법, 고려서적주식회사(역대한국문법대계1-63, 탑출판사).
- 정인승(1956), 표준중등말본, 신구문화사(역대한국문법대계1-81, 탑출판사).
- 조남호(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1977), 우리말본(여섯번째 퍼냄), 정음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자.
-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浜之上 幸(1994), 기능문법의 관점에서 본 "-이다", 주시경학보 13.